

02 “신진건축사 대상의 새로운 위상과 정립이 필요할 시점”

“When the new status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registered architects are needed”

역대 ‘대한민국신진건축사대상’ 대상 수상자들이 말하는 건축이야기

올해로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이하 신진건축사대상)’은 6회째를 맞이했다. 정부가 한국식 ‘유로판(Europan)’을 추진한다는 목적 하에 젊고 창의적 건축사를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본 시상제도는, 만 45세 이하 건축사 중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해 본인 설계로 준공된 작품이 1개 이상 보유한 건축사만 참여할 수 있다. 정부의 취지 만큼 국제적 명성의 건축사를 성장시키는 토양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단순 상수상은 의미가 없다. 건축사의 설계 작품은 건설업이나 건자재 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식 산업으로 인식이 필요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신진건축사 대상은 2013년 국내 건축문화와 우수 건축사에 대한 국제브랜드화를 위해 명망 높은 신진 건축사를 키우기 위해 시작됐지만, 인센티브 부족 등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그동안 공을 들여온 신진건축사 육성을 위해선 사무소 직원채용 지원, 홍보, 각종 정부사업 참여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월간 건축사>가 역대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대상수상자에게 시상제도 발전을 위한 제안과 대한민국 건축사로 살아 가며 느끼는 다양한 건축이야기들을 들어봤다.

<대담 편집국장, 글·사진 장영호>

유로판(Europan)이란?

유로판(europan)은 실제 사업대상지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유럽의 40세 이하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유럽 도시계획건축 설계경기로 당선안의 실현을 지원하며, 2000년에 시작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참석자

김현진 에스피엘케이 건축사사무소 '14년 '혼신지 집'
 홍영애 건축사사무소 moldproject '15년 '노고산동 꽃학원'
 한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한 '16년 '하동 두 마당집+정금다리카페'
 이승환·전보림 아이디알건축사사무소 '17년 '매곡도서관'
 강영진·강우현 아키후드 건축사사무소 '18년 '서림연가'

편집국장 : 현 시상제도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나요? 그리고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수상자로서 각자 어떤 혜택·특전을 받았나요?

김현진 : 수상 당시 신진건축사대상 수상자는 정부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정책·사업의 심의·자문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신진건축사 설계·아이디어 공모전' 참가 시 가산점 부여 등 여러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회 안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래도 신진건축사들의 최대 관심은 생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진·강우현 : 사실 수상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무소 홍보를 위해 응모하는데 기대만큼은 아니어서 아쉽습니다. 신진건축사로서 여러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폭넓게 있었으면 하고, 특히 사무소를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에서 생존과 결부된 인센티브가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영진 건축사



김현진 건축사

김현진 : 본 상의 홍보범위가 매해 조금씩 축소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개개인의 개성 시대다 보니 기관에서 주는 상의 권위·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추세라고 봅니다. 신진건축사대상,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한다 해서 뭔가 뚜렷하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많은 실력 있는 건축사들이 이 상에 응모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 대상 수상자는 건축문화대상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한번 됐고, 제 경우엔 국토부 자문위원풀(Pool)에 포함돼 활동을 했습니다. 국토부 연구과제, 사업 총괄코디, 더 나아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상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서는 수상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공모라든지 특정 또는 공공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전보림 : 주관 정부부처인 국토부에서 신진건축사대상을 위한 예산을 차츰 줄여서 올해부터는 신진건축사대상을 위한 심사위원풀을 별도로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건축사대상의 경우 전시를 위한 판넬 출력비 조차도 지원이 안 되지만, 젊은 건축가상의 경우엔 상금 및 전시지원

금 지급, 출판기념회, 국내전시, 대담회 개최 등의 혜택과 홍보행사가 있습니다.

김현진 : 젊은 건축가상의 경우는 과거 5팀을 뽑아 1인당 500만원의 전시지원금을 지원하고, 도록 제작을 위해 편집디자이너도 한명씩 보조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전시지원금이 축소됐고, 신진건축사상의 경우엔 별도의 전시가 아예 없습니다.

편집국장 : 두 시상제도에서 보듯 신진건축사대상처럼 작품에 초점을 맞춰 상을 수여하는 게 맞는 게 아니면 젊은 건축가상처럼 작가에 초점을 맞춰 주는 게 맞는 건지 어떤 의견이신지요.

김현진 : 꾸준히 작업을 하고 그 사람이 수상할만한 퀄리티를 입증할 때 상이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요.

전보림 : 젊은 건축사를 정말 위한다면 작품보다는 작가에게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 작가한테 더 많은 기회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젊은 건축사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프로젝트 수주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축계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은 뭘까요?



홍성용 편집국장

편집국장 : 프로젝트 수주 사안은 건축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약 80% 이상이 1인 사무소이며, 개업건축사는 약 1만 5천명, 그리고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총 2만4천명 가까이 됩니다.

건축하는 사람이 갖는 발언에 대한 조직적 장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제도개선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내가 조금 희생해서 협회 등 조직에 들어가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건축가는 총 약 210여 명 정도 됩니다.

중요모임 공지를 하고 모이면 채 10명이 안될 정도로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설계비 미지급, 늘어나는 워킹타임 등 불만을 토로하면 데이터를 요구하는데, 작년의 경우 간사 3명만



리포트를 제출했습니다. 보통 설계협의를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협회 등 조직을 활용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반응이 어떻게 그래야 뭔가가 나오지 않아요.

전보림 : 지금 건축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슈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그랜드슬램으로 상 받은 건축사가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는 게 전체 건축사 모두에게 이로운 것 아닐까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건축사의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슈를 만들어주고 설계로 주목 받는 건축사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홍영애 : 수상 후 1년간 정부 주관 각종 정책, 사업의 자문을 했었고, 그 후 공공건축가로서 작은 공공 프로젝트도 했습니다. 수상 후 보도자료, 멘토링, 다양한 경험을 통한 혜택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천천히 쌓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은 조바심내지 않고, 내공을 길러야 겠다라는 생각으로 길게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사무실은 생존이 절실해 외부 활동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건축사의 역할과 지위가 나아져야 하고 저도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설계자로서 결정을 내리고 제안을 하는 입장에 있다 가도 어느 순간 수용하고 조율하는 입장이 되어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관여하게 됩니다. 사건사고의 연속이고 큰 생각(?)을 할 틈과 여유가 없습니다.



홍영애 건축사

전보림 : 공공건축을 하면서 건축사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게 업무대가 문제입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대가를 받지 못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일은 일대로 많이 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대부분 많이 힘들어합니다. 업무에 대한 적정대가 기준이 바로서야 합니다. 이 일을 바로잡는 것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보림 건축사

편집국장 : 사실 설계업무 중 기획업무가 건축설계업무만큼 비중이 커져야 합니다. 기획업무는 크리에이티브한 솔루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를 제조업처럼 원가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전보림 : 기획과 디자인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음에도, 기획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한보영 : 대형사무소는 PPT 등 프로젝트 기획에 대한 비용들을 감당할 순 있지만, 이제 막 사무소를 시작하는 건축사들은 여건이 안 돼 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계약하지도 않은 일을 할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신진건축사대상의 권위는 건축계를 위해 필요

편집국장 : 건축계에 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권위가 없는 것도 이 때문 아닐까요?

김현진 : 과거 이 문제를 놓고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각종 시상제도를 통합하고 싶어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한번 폐지하면 다시 시상제도를 만들 수 없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어, 혜택을 줄이되 그 상의 명분을 유지하는 게 어렵던 당시 최소한의 방어였던 것 같습니다.

수상자로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의 참가자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려면 우리 수상자들이 다음 세대의 취업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턴제를 좀 더 확

장해 1~2년 정도 보장해 주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슈가 되는 사업참여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사업들의 총괄 코디네이터 또는 부코디네이터로서 추천을 해줘야 합니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에서 일부 건축이 메인으로 있는 사업들이 선정됐습니다. 국토부에서 수상자팀에 도시재생사업 중 건물 몇 개를 실제적으로 계약을 하게 해주든지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건축사사무소는 소상공인으로 인정돼 청년일자리장려지원금을 9백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성건축사가 대표로 여성기업인증을 받으면 5천만 원까지 공공분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건축사사무소는 학술용역업무를 등록할 수 있고, 일정조건을 갖추면 산업디자인회사로 신고해 대부분 2억 원 내외에 이르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건축 행정의 임의 규제는 전국적 문제, 규제만 있고 협상은 없어

편집국장 : 지방에서 활동할 경우 어떤 애로점이 있나요.

한보영 : 프로젝트 진행할 때 지자체별 건축 관련 임의규제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락에서 나가는 문이 있으면 안 된다거나 주차장을 계획하고 녹지율이 나오지 않아 옥상에 녹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임의규제들입니다. 다락의 경우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과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약을 둡니다.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설계비에 대한 인식차이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보영 건축사

김현진 : 건축학부 졸업생들이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그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자라난 그 친구들이 해당 지역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대구지역 학생이 서울에 가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주거비·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인데, 대구에 본인 집이 있고 출퇴근 한다면 현재 받는 급여로도 오히려 서울 강남보다 훨씬 경제적·안정적·정서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역에 취업하기 좋게 지역에도 좋은 건축사사무소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홍영애 : 협회가 건축계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가치·이상이 정확하게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비가입 건축사들도 동조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는 공공프로젝트를 빼놓고는 논할 수 없는데, 건축행정에 대해 협회에서 자문·멘토링해줄 수 있는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보영 : 젊은 건축사들은 무엇보다 수주방법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모전, 신진건축사대상이 아니면 딱히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진건축사 지원 공모전이 좀 더 확대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더 활짝 열렸으면 합니다. 일반 공모전에선 심사위원 평가내용이 없다 보니 피드백이 잘 안되고, 공모전을 계속 참여해야 하나라는 회의감마저 듭니다. 공공 설계공모의 투명성, 심사위원 배정을 등 건축이 말할 수 있는 힘을 조금씩 넓혀가다 보면 건축을 대중들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우현 건축사

강우현 : 신진건축사대상에 응모하면서 2015년 장려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으론 사무소 홍보, 작업했던 작품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받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신진건축사대상에 응모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본인이 이런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대중들과 건축 관련 기관에 더 알리고 싶은 거죠. 올해는 홍보면에서 예전에 비해 느슨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전보림 : 공공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계한다는 것에 큰 보람을 얻습니다. 비슷한 예산을 투자하지만 좋은 설계로 얼마나 다른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국내 공공건축물은 일정 규모 이상은 대형사무소에서 대부분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퀄리티가 현재 인력풀 수준과 비례한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신진건축사들에게 규모가 있는 공공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검증된 팀을 지명해 설계공모전에 참여케 하고, 우수한 퀄리티가 보장되는 공모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내 설계공모는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공공건축물을 통한 설계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만들어나가면 건축사의 위상도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건축사가 지속가능한 직업이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편집국장 : 사실 건축계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일지라도 수십 번 말하고 이것이 언론, SNS 등 여러 통로로 전달될 때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지금처럼 미래의 희망을 향해 부단히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2013년 대상 수상작 [풍기읍사무소] 최재원 건축사



2014년 대상 수상작 [혼신지 집] 김현진 건축사



2015년 대상 수상작 [노고산동 꽃학원] 홍영애 건축사



2016년 대상 수상작 [하동 두마당집+정금다리카페] 한보영 건축사



2017년 대상 수상작 [매곡도서관] 이승환·전보림 건축사



2018년 대상 수상작 [서림연가] 강영진·강우현 건축사